

성인학습자의 사회적 자본과 안전의식 · 안전추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창원지역 중심으로

박신영 · 어용숙[†]
(부산대학교 · [†]동의대학교)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 of Adult Learner : Focusing on Changwon City

Sin-Young PARK · Yong-Sook EO[†]
(Pusan National University · [†]Dong-Eui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 of adult learners in order to provide a basis for planning safety education to improve the safety behaviors. The participants were 162 adult learners who participated in the 「Go to find safety classroom of citizens」 in Changwon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and analyzed with the SPSS-WIN 20.0 program. As a results, first, the mean score for social capital was 3.36(social confidence 3.38, reciprocal norms 3.29, networks 3.22, democratic citizen awareness 3.56), ego-resilience 3.57. Second, social capital was significant correlation ego-resilience($r=.63$, $p<.001$) and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r=.44$, $p<.001$). Third, ego-resilienc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r=.54$, $p<.001$). Forth, ego-resilience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 Based on these findings of this study, safety education focusing on ego-resilience and social capital improvement are highly recommended to promote safety behavior in adult learners.

Key words : Adult learner, Social capital, Ego resilience, Safety awareness, Safety pursuit behavior

I. 서론

고도의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편리한 삶을 제공해 준 반면,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만들었다. 현대사회는 Ulrich Beck(1986)이 주장한 것처럼 “위험사회(risk society)”가 되었으며, 고도의 과학기술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리는 도시일수록 더 위험한 도시가 되

어 버렸다. 이제 위험(risk)은 현대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어가 되었고, 우리의 문명은 “활화산 위에 선 문명”(Ulrich Beck)으로 “정상적 사고”(Charles Perrow)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Hong Seong-Tae, 2014). 특히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도모한 결과,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삼풍

[†] Corresponding author : 010-5113-6190, nursingeo@deu.ac.kr

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2014년 경주 코오롱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및 세월호 침몰,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 등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우리사회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체계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위험과 사고에 대한 올바른 학습을 제공하여 시민의 인식수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Hong Seong-Tae, 2007). 또한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뢰는 전 지구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국제사회에서 선진적인 관계를 형성 및 유지하고, 국내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를 정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Lee On-Jook, 2004). Lee On-Jook(2004)은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상호신뢰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기대·의무에 관한 규범들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회적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연계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Cho Nam-Auk, 2008).

따라서 사회구성원들이 평소 어느 정도의 사회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이들이 일상생활에서든, 위험한 상황에서든 안전의식을 가지고 안전추구행동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게다가 사회구성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유연하게 반응하여 불안을 낮추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참여 등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능력”(Block & Kremen, 1996)인 자아탄력성의 보유 정도도 침착하게 행동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각종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인해 안전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안전과 사회적 자본 등의 내용을 다룬 연구로는 사회적

자본과 범죄를 다룬 연구(Huh Yong-Hoon, 2007; Kim Sang-Weon, 2012; Kwon Jung-Ki, 2014), 사회적 자본과 소방을 다룬 연구(Baek Jong-Sun-Chae, Jin 2011; Woo Seong-Cheon et al., 2014) 등이 있긴 하나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회적 자본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을 연구한 Kwon Jung-Ki(201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인 신뢰·참여·네트워크·이타주의 요소와 생활범죄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기간이 길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화재, 범죄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많고, 음식을 나누거나 간단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이 많아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im Sang-Weon(2012)은 사회적 자본이 폭력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지역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폭력범죄를 감소시키고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수준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폭력범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역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 강화를 위한 개별적이고 공동체적인 노력과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Woo Seong-Cheon et al.(2014)은 의용소방대의 사회적 자본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규범이 의용소방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용소방대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독립된 법령이 제정되어야 하고, 의용소방대원 간의 강한 신뢰가 형성되어 조직전체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헌신한다면 지역사회 안전의 수준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사회가 문명화될수록 인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인간이 생활하는 공간인 도시도 과거와 달리 경쟁력을 갖춘 도시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을 도시생존을 위한 핵심가치로 간주하게 되었다.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통합(2010. 7. 1)으로 인구 108만 명의 거대도시가 된 경상남도 창원시는 2014년에 세계에서 331번째로, 국내에서 9번째로 WHO 국제안전

도시로 공인을 받았다. 또한 창원시는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2015년 4~6월 걸쳐 관내 40개 읍면동 주민대상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은 교통안전, 화재안전, 그리고 각종 응급처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에 참여한 지역주민인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도출된 결과는 향후 창원시가 시민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최근 다양한 학문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학자들이 물질 자본과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킨 이후, 사회학자들이 경제현상을 사회학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였다(Shin Seok-Geun, 2010).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20세기에 프랑스 사회학자 Bourdieu에 의해 선도되었고, 사회적 자본을 이론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Coleman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시킨 사람은 미국의 사회학자 Putnam이라고 할 수 있다(Shin Seok-Geun, 2010). Bourdieu(1986)은 사회적 자본을 “개인 서로 간에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인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보았으며, 그는 호혜적 규범과 네트워크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Coleman(1988)은 사회적 기능에 의해 사회적 자본을 정의하였는데, 사회적 자본은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두 개의 요소가 결합된 다양

하고 상이한 실체로 그 구조 안에 속하는 개인들의 특정 행위를 촉진시키며, 신뢰와 호혜적 규범이 이에 속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조건과 관련시키면서 상호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이 그 특징으로 포함된다고 보았다. Baek Myung-Ja(2006)는 “신뢰와 규범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관계형성으로 상호이익을 위해 협조적이고 협력하는 사회구성원들 간의 참여활동 과정”으로 사회적 자본을 규정하였으며 신뢰, 규범, 네트워크, 민주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 자본은 학자에 따라 그 개념과 구성요소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은 대체로 인간관계 내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상호이익을 위한 협력이나 사회적 시너지의 생산을 용이하게 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Lee On-Jook, 2004: 396).

본 연구에서는 Baek Myung-Ja(2006)가 정의한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 기반하여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민주시민의식을 그 구성요소로 하였으며, 구성요소들에 대한 개념들은 Ahn Byung-II(2009)의 연구에서 활용한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그는 “신뢰는 서로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기대했던 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로 보았으며 “상호 호혜적 규범은 공정하고 선의에 기반을 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에 우호적으로 응대하며, 불공정하거나 기회주의적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물질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에 보복하고자 하는 경향”(Cho Nam-Auk, 2008)으로 보았다. 또한 “네트워크는 지식과 정보의 교환과 조직활동의 참여에 기여하는데 네트워크 형성은 신뢰와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상호작용 및 지식교환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민

주시민의식은 사회를 통해 형성되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있어 시민들이 형성해야 할 자아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Kim Tae-Jun, 2003).

2. 자아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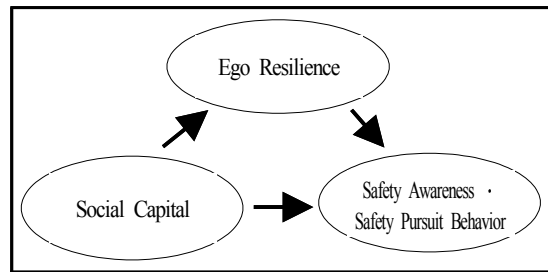
복잡하고 위험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도시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 자아탄력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Hur Jung-Park Hyun-Jung(2015)은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재난간호 인지정도($r=.175, p=.009$)와 재난간호역량($r=.331, p=.000$)이 높다고 주장하면서 재난간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간호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Sim Yun-Gi-Kim Wan-II(2013)의 연구에서는 군복무 적응에 대한 전체 자기복잡성과 긍정적 자기복잡성이 낮은 장병들은 자아탄력성이 높을 때 군복무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낮을 때 군복무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병영생활상담에서 자기모습을 다양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복잡성이 낮은 장병들은 자신이 인식한 모습을 능동적으로 행동화하고 실천에 옮기는 자아탄력성의 정도를 높여주는 것이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hi Myung-Won·Lee Ju-Yeon(2012)의 연구에서는 정서노동자인 보육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원아들과의 활동요인 스트레스, 업무관련 스트레스, 행정적 지원 스트레스, 대인관련 스트레스, 경제적 안정 스트레스, 개인관련 스트레스는 낮게 지각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Kim Ji-Hyun(2013)의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문제행동인 공격성, 우울 불안,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히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재난간호 인지정도

($r=.175, p=.009$)와 재난간호역량, 군복무 적응, 스트레스, 청소년의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Fig. 1]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의 정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자본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창원시가 40개 읍면동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에 참여한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2015년 5월 7일~26일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설문지 171부 중에서 162부를 통계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 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84.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연령은 50~59세가 57.4%로, 학력은 고졸이자가 79.0%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없다 65.4%, 있다 34.6%로 나왔으며,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54.9%로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절반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소속(주민자치위

원회, 통장협의회 등) 여부는 78.4%가 소속되어 있었으며, 재난 및 사고 경험은 69.8%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안전교육 경험은 72.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62)

Characteristics		N	%
Sex	Male	26	16.0
	Female	136	84.0
Age(year)*	≤ 49	30	18.5
	50-59	93	57.4
	≥ 60	39	24.1
Education level	High school or below	128	79.0
	College or more	34	21.0
Job	Yes	56	34.6
	No	106	65.4
Housing	Apartment	89	54.9
	Detached house	73	45.1
Monthly income (Manwon)	≤ 150	38	23.5
	151-300	59	36.4
	≥ 301	65	40.1
Belonging to the organization	Yes	127	78.4
	No	35	21.6
Experienced of disaster	Yes	49	30.2
	No	113	69.8
Experienced of safety education	Yes	118	72.8
	No	44	27.2

* M±SD = 54.14±8.85

3. 측정도구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측정도구는 <Table 2> 와 같다.

가.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는 Ahn Byung-Il(200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뢰 8문항, 상호 호혜적 규범 7문항, 네트워크 6문항, 민주시민의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Ahn Byung-Il(2009)의 연구에서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신뢰 .81, 상호 호혜적 규범 .65, 네트워크 .66, 민주시민의식 .5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총합한 결과 .80으로 나타났다.

나. 자아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Connor & Davidson(2003)이 개발한 도구를 Baek Hyun-Sook(2010)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강인함, 인내력, 낙관성, 지지, 영성의 5개 요인,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89이었으며, Baek Hyun-Sook(2010)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은 국민생활 위기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로 Lee John(2011)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안전의식의 중요성 인식, 개발제한, 피해가능성, 비용부담, 예방투자, 안전확보, 안전가치, 기상변화고려, 관계기관신고, 교육참여, 성금기부, 자원봉사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개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대상자인 성인학습자에게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음을 안전전문교육 담당교사 1인과 안전관련 학과 교수 2인에게 확인하였으며, 도구의 문항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는 .92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의수준 0.05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for Social capital, Ego-resilience and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

Instruments		Item Number	Number of items	Cronbach Alpha for this study
Social capital	Social confidence	1, 2, 3, 4, 5, 6, 7, 8	8	.80
	Reciprocal norms	1, 2, 3, 4, 5, 6, 7	7	
	Networks	1, 2, 3, 4, 5, 6	6	
	Democratic citizen awareness	1, 2, 3, 4, 5, 6	6	
	Subtotal		27	
Ego-resilience	Hardiness	1, 4, 14, 15, 16, 17, 18, 19, 23	9	.92
	Persistence	5, 10, 11, 12, 21, 22, 24, 25	8	
	Optimism	6, 7, 8, 9	4	
	Support	2, 13	2	
	Spirituality	3, 20	2	
Subtotal		25		
Safety awareness	Importance	1	1	.92
	Limited development	2	1	
	Damage possibility	3	1	
	Costs	4	1	
	Prevention investment	5	1	
	Ensure safety	6	1	
	Safety value	7	1	
Safety pursuit behavior	Consider weather changes	8	1	.92
	Reported related institutions	9	1	
	Participated education	10	1	
	Participated donations	11	1	
	Volunteer	12	1	
Subtotal		12		
Total		64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였다.

넷째, 사회적 자본,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는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Baron & Kenny(1986)가 제시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다음의 세 단계의 회귀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에 대한 매개변인의 회귀분석,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에 대한 종속변인의 회귀분석,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모두에 대한 종속변인의 회귀분석이 필요하다. 매개효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회귀분석 결과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세 번째 단계에서 매개변인이 반드시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의 영향이 두 번째 회귀분석보다 세 번째 회귀분석에서 반드시 감소되어야 한다. 이때 세 번째 식에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면 완전매개효과, 유의하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 정도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의 정도는 〈Table 3〉과 같다. 사회적 자본은 평균 3.36점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하부요인인 신뢰는 3.38점, 상호 호혜적 규범은 3.29점, 네트워크는 3.22점, 민주시민의식은 3.56점으로 나타났다. 이들 점수는 모두 보통 이상으로 나타나 단체활동(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한다는 Ahn Byung-II(2009)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대상자의 78.4%가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특성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아탄력성은 평균 3.57점으로 보통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은 평균 3.98점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72.8%가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과 관련 지어볼 수 있다.

<Table 3> Level of Social capital, Ego-resilience and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 (N=162)

Variables		M	SD
Social capital	Social confidence	3.38	0.51
	Reciprocal norms	3.29	0.38
	Networks	3.22	0.61
	Democratic citizen awareness	3.56	0.46
	Subtotal	3.36	0.34
Ego-resilience		3.57	0.43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		3.98	0.49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의 관계는 <Table 4> 와 같다. 사회적 자본은 자아탄력성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r=.63, p<.001$),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이 높았다($r=.44, p<.001$). 또한 사회적 자본의 하부요인인 신뢰, 상호 호혜적 규범, 네트워크, 민주시민의식과 자아탄력성 및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신뢰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r=.63, p<.001$),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이 높았다($r=.63, p<.001$). 상호 호혜적 규범이 높을수록 자아탄력

성이 높고($r=.43, p<.001$),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이 높았으며($r=.34, p<.001$), 네트워크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r=.39, p<.001$),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이 높았다($r=.23, p=.003$). 민주시민의식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r=.53, p<.001$),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이 높았다($r=.34, p<.001$). 자아탄력성은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이 높았다($r=.54, p<.001$).

2. 사회적 자본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 간의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 사회적 자본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이 매개변인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에서 β 값이 .627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이 종속변인인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에서 β 값이 .441이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마지막 3단계에서 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종속변인인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을 예측요인으로 하고

<Table 4> Relationships among Social capital, Ego-resilience and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 (N=162)

	Social capital r(p)	Social confidence r(p)	Reciprocal norms r(p)	Networks r(p)	Democratic citizen awareness r(p)	Ego-resilience r(p)
Social confidence	.67(<.001)					
Reciprocal norms	.74(<.001)	.37(<.001)				
Networks	.74(<.001)	.19(.016)	.50(<.001)			
Democratic citizen awareness	.66(<.001)	.35(<.001)	.32(<.001)	.25(.001)		
Ego-resilience	.63(<.001)	.44(<.001)	.43(<.001)	.39(<.001)	.53(<.001)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	.44(<.001)	.35(<.001)	.34(<.001)	.23(.003)	.34(<.001)	.54(<.0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 (N=162)

Model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Mediate) Variables	B	S.E.	β	t(p)
1	Ego-resilience	(Constant)	.926	.261		3.551(p<.001)
		Social Capital	.786	.077	.627	10.194(p<.001)
		F=103.908(p<.001), adj.R ² =.390, VIF=1.000, Durbin-Watson=1.832				
2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s	(Constant)	1.867	.343		5.450(p<.001)
		Social Capital	.629	.101	.441	6.208(p<.001)
		F=38.537(p<.001), adj.R ² =.189, VIF=1.000, Durbin-Watson=2.217				
3	Safety Awareness · Safety Pursuit Behaviors	(Constant)	1.414	.331		4.268(p<.001)
		Social Capital	.244	.121	.171	2.016(p=.046)
		Ego-resilience	.490	.097	.430	5.062(p<.001)
F=35.048(p<.001), adj.R ² =.297, VIF=1.649, Durbin-Watson=2.164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적 자본($\beta=.171$, $p=.046$)과 자아탄력성($\beta=.430$, $p<.001$)이 모두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나,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2단계 회귀식에서의 β 값 .441이 3단계 회귀식에서는 β 값이 .171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변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 결론 및 제언

창원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에 참여한 성인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자아탄력성,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자본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 중 여성이 84.0%, 50-59세가 57.4%, 고졸이하가 79.0%, 무직이 65.4%, 아파트거주가 54.9%, 단체소속(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이 78.4%, 안전교육 경험이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창원시에서 실시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에는

주로 50-59세 해당하는 직업이 없는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으로서 관변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시민이 많이 참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은 평균 3.36점으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 중에서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과 관련이 깊은 신뢰(3.38점), 민주시민의식(3.56점), 상호 호혜적 규범(3.29점), 네트워크(3.22점) 모두가 보통 이상인 하나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향후 창원시가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네트워크, 상호 호혜적 규범, 신뢰 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은 자아탄력성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성인학습자들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고,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성인학습자들의 자아탄력성도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불안감을 낮추고 삶에 긍정적

인 참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창원시는 시민들이 안전사고를 당한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이론과 체험이 겸비된 안전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Baron & 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자본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정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자본과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변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립변인인 사회적 자본은 부분매개변인인 자아탄력성이 없어도 종속변인인 안전의식·안전추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창원시가 WHO 국제안전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연령별·계층별 시민안전교육을 통해 시민의 사회적 자본과 자아탄력성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창원시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리더 역할을 하는 관변단체 회원 등을 중심으로 사회자본 강화, 안전의식고취, 안전추구행동 강화 등을 위한 시민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이들이 지역민의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창원시 시민안전교육이 일회성과 전시성을 가진 시책이 아니라 지속성과 실효성을 가진 시책이 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론과 체험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2015년 창원시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에 참여한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도출되었기에 일반화하는 데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향후 창원시가 시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을 강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Byung-II(2009). The effects of the Participatory Experiences in Youth Organizations on Social Capital Building, Myongji University.
- Baek, Hyun-Sook(201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K-CD-RISC). Eulji University.
- Baek, Jong-Sun · Chae, Jin(2011). Way of Fire Safety through Formation of Social Capital of Fire Service Organization.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5(2), 1~34.
- Baek, Myung-Ja(2006). A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Social Capital: focusing on participation in NGOs. Daejeon University.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 Chi, Myung-Won · Lee, Ju-Yeon(2012). The effect of emotional workers' ego-resilience and stress-coping methods on their job stress.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 12(2), 249~263.
- Cho, Nam-Auk(2008). The analysis of Structure Model about the Influence on Accumulation of Social Capital affected by Youth Group Activity. Kyonggi University.
- Coleman, J.(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95~119.
- Connor, K. M. · Davidson, J. R.(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Depression & Anxiety, 18(2), 76~82.
- Hur Jung · Park, Hyun-Jung(2015). Nursing Students' Perception, Competency of Disaster Nursing and

- Ego Resilience.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8), 121~138.
- Hong, Seong-Tae(2007). *Risk society*(translation). Seoul: Dangdae.
- Hong, Seong-Tae(2014). *Diagnose Risk society*. Seoul: Aropa.
- Huh, Yong-Hoon(2007).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Policing Performance: Focused on the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Local Government Studies*, 11(4), 87~111.
- Kim, Ji-Hyun(2013). The intermediary effect of ego-resilience from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for facility protected adolescent on problem behavior. *Journal of The Institute of Korean Counseling & Psycho-Therapy*, 4(2), 1~13.
- Kim, Sang-Weon(2012). *Social Capital and Crim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Violent Crime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9(1), 1~25.
- Kim, Tae-Jun(2003). The Study of measuring citizenship for developing social capital. KEDI.
- Kwon, Jung-Ki(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ocial Capital and Crime Rate*. Gachon University.
- Lee, John(2011). *A Comparatice Study of Crisis Management Perception between China and Korea-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of Disaster and Safety in Chian and Korea*.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Lee, On-Jook(2004). *Trust: The Social Capital of a Global Village*. Seoul: Jipmondang.
- Shin, Seok-Geun(2010). *An analysis on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of promoting social capital through elementary school lifelong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Sim, Yun-Gi · Kim, Wan-Il(2013). The Effects of Self-Complexity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Military Service among Soldie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2), 1265~1284.
- Park, Woo-Jae · Woo, Jin-Kyoung(2011). *City brand marketing to create a attractive space of life*. Gwang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ess.
-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Woo, Seong-Cheon · Chae, Jin · Go, Gi-Bong (2014).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ormation of Social Capital for Volunteer Fire Brigade*.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28(1), 64~70.
-
- Received : 06 November, 2015
 - Revised : 07 December, 2015
 - Accepted : 21 January, 2016